

'재미있고 쉬운' 경제책 쏟아져 나온다

어려운 경제현실 쉽게 풀어 설명... "쉬운 것이 최상인가" 異論도

이즘 서점가를 휩쓰는 출판경향 가운데 하나가 전문지식을 재미있고 알기 쉽게 풀어 쓴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현상이다. 관심은 있지만 너무 어렵다고만 여겨온 전문분야에 일반인이 손쉽게 발디딜 수 있도록 이끄는 '길잡이'임을 자임하는 이 책들은, 고답적이고 현학적인 '설교'는 일체 사절하고 있는 것이 공통된 특징.

「철학에세이」(동녘)는 흔히 이런 경향의 '비조'로 지목되곤 하는 책. 83년 출간된 이래 '낙양의 지가'를 한껏 올린 이 책은 80년대 사회과학출판계가 대학 초년생과 선진적인 노동자를 위해 입문서 성격을 띤 이념도서를 양산하게 되는 자극제가 되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 와서 '쉬운 책'은 자연과학 도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출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상적인 현상을 과학의 합법칙성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기획은 「알기쉬운...」이라는 이름의 시리즈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와같은 저간의 사정 속에서 근래 '쉬운 책'이 눈에 띄게 늘어난 분야는 경제관련도서. "복잡한 수식과 도표를 사용하지 않고 쉽고도 재미있게 오늘의 경제문제를 조명하는 생활속의 경제학"을 표방하고 있는데, 독자들이 경제원리를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주면서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흐름을 맥 짚고 하고 있다.

난해성의 늪에서 경제학을 '구원'

우리 경제현실을 일반인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책들은 저자가 갖고 있는 '세계관'에 의해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지고 있다. 그 첫번째 경향은 우리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구조적인 모순으로 파악하고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대안으로서의 새로운 체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 두번째 경향은 자본주의 체제의 상대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우리 경제현실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책이다.

「광대의 경제학」(정운영 지음, 까치, 1989)은 우리 경제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대표적인 책. 도표와 그래프와 방정식으로 매끈하게 다듬어진 경제학이 때때로 '곳간' 문에 서둘러 빗장을 거는 '양반의 경제학'으로 '추락'하는 것을 비판하는 저자는, 이에 자신의 경제학을 '광대의 경제학'이라고 이름 짓고 있다. 난해한 언어와 난삽한 부호로 오염

된 경제학을 그 늪으로부터 '구원'해내고자 애쓰는 저자는, 경제학이 밥의 크기와 자유의 영역을 확대하는 과제에 복무하는 학문이라는 소신에 입각,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다. "어느 시인의 가을 서정에 의해 농민의 애환을 전하고, 코난 도일의 탐정소설로 어민의 고통을 환기하고, 채플린의 영화를 빌려 노동자의 사랑과 투쟁을 격려하고, 검은 피부를 지닌 한 보컬그룹의 절규로 가진 자들의 이기를 고발"하고 있다.

저자의 또하나의 저서인 「저녁은 경제학을 위하여」(까치, 1990)는 먼저의 책이 주로 신문에 발표된 글을 중심으로 사회현실에 대한 단평을 모은 것에 비해 잡지에 발표된 다소 긴 글을 모은 책이다. 경제학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암호해독에 질려 경제현상과 경제이론에 대한 일상적인 관심마저 포기하려는 일반인들에게 유익한 안내자가 되고 있다.

토지 독점 현상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고, 그것은 바로 잘못된 사회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통렬히 비판하는 「땅-투기의 대상인가 삶의 터전인가」(김태동 지음, 비봉출판사, 1989)는 최근의 '총체적 난국'을 일으킨 주범의 하나로 거론되는 토지문제에 대한 연구서. 지난해 시민운동단체로 발족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기획한 '경실련문고'의 첫책권으로 한국토지문제의 실상과 해결방안을 심층적으로 모색하고 있는데, 땅문제의 해결없이는 경제정의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문제의 본질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작금의 우리 경제의 위기가 일반적인 견해대로 노사분규나 환율, 수출 등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의 토지독점에서 비롯되는 분배정의의 실종에 있다고 주장, 부동산투기가 "환갑도 맞이하지 않은" 한국자본주의 수명을 갹아먹는 '바이러스'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경제학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써어졌는데, 두 저자의 경우에도 자신들의 이사경력을 합하면 40여년이 족히 될 것이라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에세이에서 만화까지 다양하게 선보여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동아출판사, 1990)는 만화로 그린 체제비교서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은 책. 원시공산제부터 자본주의 형성까지의 역사를 개괄한 이후, 사회주의 사상의 성립을 살피고 있다. 양체제의 장단점



최근 서점가에 부쩍 늘어난 '재미있고 쉬운' 경제서들

을 다소 도식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있는 이 책은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 사회가 추구하여야 할 체제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송병락교수의 「마음의 경제학」을 저본으로 삼아 덕성여대 이원복 교수가 만화로 그렸다.

현직 경제관료가 쓴 「경제이야기」(이영탁 지음, 김영사, 1990)는 저자가 지난 20여년간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 경제관계부처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쓴 경제원리에 대한 해설서.

"바둑이나 장기에도 기본정석이 있고 어느 스포츠에나 기본동작이 있듯이 우리가 생활속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각종 경제문제에도 기본적인 속성이나 원리가 있다. 이 책은 이러한 경제원리를 알기 쉽게 정리함으로써 지금까지 경제와 친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도 경제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 저자의 말이다.

「수필로 엮은 경제학」(베타나 B. 그레이브스 엮음, 박병호 옮김, 한국경제신문사, 1990)은 미국경제교육재단의 월간지인 「자유인」에 실렸던 명문의 경제수필 81편을 엄선하여 편집한 책.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에 걸쳐 각 분야마다 수필식의 경제에세이가 써어져 있는데 우화나 실사예를 곁들여서 재미있는 글이 되도록 필자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특징. 오늘날의 경제적 토대를 규정하는 3개의 사조를 순수자본주의·수정자본주의·사회주의로 가름하고 이 가운데 순수자본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를 본질적으로 이해하도록 애쓰고 있는, 이즘을 흔치 않은 책이다.

「세계경제삼국지」(朝日저널 엮음, 김광희

옮김, 나남, 1990)는 일본의 대표적인 신문인 「朝日신문」이 영국·미국·일본의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을 동원, 가위 세계경제의 '動亂史'적 일지를 엮은 그 흥망의 발자취를 뒤쫓고 있는 책이다. 책이름이 암시해 주듯 세계의 경제적 패권의 향방을 놓고 150여년간 부침을 거듭한 '약육강식의 현장'을 소설적인 접근으로 엮었다. 21세기는 팩스 아메리카나에서 팩스 자포니카로 이행할 것이라는 미래진단도 곁들여져 있다.

쉬운 책과 천박한 대중추수주의

최근 출판계를 강타하고 있는 '쉬운 책' 신드롬은 그것이 갖는美德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곱씹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박종만씨(까치대표)의 경우, '쉬운 책'이 활발히 출판되고 있는 경향에 대해 "출판계에 횡행하는 쉬위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의 강박관념" 탓이라고 표현하면서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이들이 다 읽도록 하겠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즘의 '쉬운 책'들은 대중추수주의적인 일부 저자와 출판사가 '야합'해서 모든 국민을 국민학교수준의 독자로 평균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저자나 출판사가 간행하는 책의 독자층을 명백히 설정하고 그 수준에 맞는 글쓰기 형태로 출판하는 경향을 띠어야 한다"는 박종만씨의 지적을 출판계가 귀담아 들어야 할 듯. 왜냐하면 읽히게끔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로서의 독자의 '몹'도 가치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권우 기자